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07 / 제5호



2018 SEASON

2018시즌 경기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HEAD COACH INTERVIEW

인천에 상륙한 '동화작가' 안데르센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

ROOKIE INTERVIEW

정원영, “경기장에서 독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

TRAINING TIP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 허벅지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3월 03일(토) 16:00	2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7월 25일(수) 19:30	인천 : 포천	인천축구전용
03월 10일(토) 14:00	3	인천 : 전북	2	인천축구전용	07월 28일(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03월 17일(토) 14:0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8월 04일(토) 18: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04월 01일(일) 14:00	1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8월 11일(토) 19:00	대구 : 인천	대구스타디움
04월 07일(토) 14:00	2	인천 : 전남	2	인천축구전용	08월 15일(수) 19:30	인천 : 상주	인천축구전용
04월 11일(수) 19:30	0	인천 : 상주	1	인천축구전용	08월 19일(일) 19:00	강원 : 인천	춘천송암
04월 14일(토) 16:00	4	제주 : 인천	2	제주월드컵	08월 22일(수) 19:30	인천 : 전남	인천축구전용
04월 22일(일) 16:00	2	인천 : 수원	3	인천축구전용	08월 25일(토) 19:0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04월 25일(수) 19:30	2	울산 : 인천	1	울산문수	09월 02일(일) 18: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04월 29일(일) 16:00	2	인천 : 경남	3	인천축구전용	09월 15일(토) 16: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05월 02일(수) 19:3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09월 22일(토) 14:0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05월 05일(토) 14:00	1	인천 : 제주	2	인천축구전용	09월 26일(수) 16:0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05월 13일(일) 14:00	3	상주 : 인천	2	상주시민	09월 30일(일) 16: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05월 20일(일) 14:0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월 06일(토) 14:00	대구 : 인천	대구스타디움
07월 07일(토) 19:00	3	전북 : 인천	3	전주월드컵	10월 20일(토) 14: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07월 11일(수) 19:3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 일정 변경		
07월 14일(토)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인천 V 포항		
07월 18일(수) 19:3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기존 8월 4일(토) 19:00 ▶ 변경 8월 4일(토) 18:00		
07월 22일(일) 18:0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08/04(토) 포항전 홈경기 시간이 19시에서 1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꼭 변경된 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www.incheonulld.com)를 통해 추가 및 변경되는 경기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UNITED

2018 SQUAD



온 안데르센 감독
HEAD COACH



박성철 코치
COACH



임중웅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자스민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광해성
DEFENDER



32 명성준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중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남준재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허벅지

- 허벅지 둘레가 건강의 척도
- 햄스트링 부상과 예방 운동
- 햄스트링 부상 예방 테이핑



최근 허벅지 둘레 및 근육양이 건강상태를 좌우하고 질병의 예방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축구선수들의 허벅지는 여성들의 허리보다 더 굵을 정도로, 그 둘레가 엄청나다.

허벅지 근육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펴주며 다리를 뒤로 당겨주고 잡아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그리고 서 있는 경우 등 모든 자세에 거의 필수적이다. 또한, 허벅지 앞 과 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지 못해 특정 질환이 없이도 무릎 통증과 관절을 닳게 할 수 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신체에서 상당한 근육량을 차지하고 있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열량을 소모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허벅지 근육이 약화되면 에너지대사가 감소하고 체내의 에너지원들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는 근육, 혈관, 내장, 간 등에 쌓여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허벅지 운동은 다이어트와 질환 예방능력을 키우는 운동이 될 수 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말하며, 크게 2가지로 안쪽과 바깥쪽 근육으로 나뉜다. 반건양근 · 반막양근이 안쪽에, 대퇴이두근의 긴 것과 짧은 것이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 햄스트링의 기능은 점프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리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면서 땅을 밀어낼 때 추진력과 동시에 달리는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키고 멈추도록 하며 방향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햄스트링 근육은 축구선수들에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축구선수에게 햄스트링은 까다로운 부위다. 보통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당하는 부상은 타박, 염좌 등으로, 외부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데, 햄스트링 부상의 징후는 그 원인이 복잡적이고 다양해서 축구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이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햄스트링 부상은 혼자 뛰거나 걷다가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복귀까지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재발할 확률도 높고, 나이가 있는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 회복속도까지 더디다. 대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예기치 않게 다리를 길게 뻗었을 때, 갑자기 허벅지 뒤쪽이 쪼는 느낌이 들면 주로 햄스트링 손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햄스트링의 부상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한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햄스트링의 근육피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서 햄스트링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햄스트링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비시즌 기에는 충분히 햄스트링 근력을 강화시켜 근육을 잡아주고, 시즌 중에는 준비운동, 근력 유지 및 마사지, 스트레칭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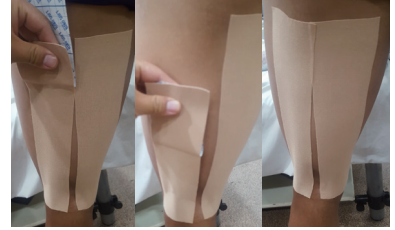
키네시오 허벅지 테이핑 방법



- 키네시오 약 30cm x2개를 준비한다. (다리 길이에 따라 다르게 준비)
- 허리를 앞으로 숙여 허벅지 스트레칭 시켜줍니다.(준비자세)



- 허벅지 안쪽부터 근육이 끝나는 지점까지 부착시켜 허벅지 근육 안쪽 라인을 따라 붙여준다.



- 이번에는 바깥쪽 허벅지근육이 끝나는 지점부터 부착시켜 허벅지 근육 바깥쪽 라인을 따라 붙여준다.
-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핑 한 부위를 비벼주며 마무리한다.

허벅지 부상 예방 운동



〈사이드 플랭크〉

- 팔꿈치를 땅에 대고 옆으로 눕는다.
- 위에서 옆모습을 보았을 때, 알자가 되도록 유지하고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 이 자세에서 반대쪽 다리를 뻗어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노르딕 칼〉

- 보조자 혹은 바벨 등으로 종아리부분을 고정해준다.
- 복부와 둔근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런지〉

- 앞, 뒤 무릎을 동시에 구부려주면서 앞으로 내딛는다.
- 허벅지- 종아리가 직각을 이루도록 하고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낮춰주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좌우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뒷발 무릎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다.

허벅지 살 빼는 운동



〈월 스쿼트〉

-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골반, 무릎, 발이 정렬이 되도록 맞춘다.
- 벽에 엉덩이부터 뒤통수까지 붙여 허리가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무릎을 90도가 될 때까지 구부린다. 이때, 무릎이 발을 넘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등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한다.
- 10초씩 3회 하루 세 번 시행한다.



〈와이드 스쿼트〉

- 양쪽 다리를 골반 자세로 벌린다.
- 두 손은 기도하듯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 끼듯 앞으로 모아둔다.
-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천천히 엉덩이를 뺀 자세로 내려간다. 이때,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에 힘을 주고 숨을 내쉬면서 빠르게 올라온다.



〈브릿지 운동〉

-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 양쪽 무릎을 바르게 세워준다.
- 양팔을 바닥에 밀착시켜 균형을 잡아주고 엉덩이 끝부분부터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린다.
- 다리-골반-복부-가슴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다.(과도하게 엉덩이를 들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



INTERVIEW

인천에 상륙한 '동화작가' 안데르센,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

다가을 후반기 인천유나이티드의 비상을 이끌 새로운 선장이 나타났다. 베르너 로란트, 일리야 페트코비치 감독 이후 인천 구단 역사상 3번째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최근 북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노르웨이 출신 윤 안데르센 감독이 인천에 상륙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안데르센 감독을 UTD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천의 진중한 태도,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안데르센 감독은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의 감독으로 부임되며 또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안데르센 감독은 “인천에 오게 되어 행복하다. 지난 2년 동안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지내며 가까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팀과 선수들이 잘 되도록 돕고 싶다”며 첫 인사를 전했다.

앞서 스스로 밝혔듯 안데르센 감독은 북한 국가대표팀에 이어 인천에서 다시 한 번 아시아 축구에 도전하게 됐다. 인천의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는 “북한에서 감독 생활을 지내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느꼈다. 그리고 계약 과정에 있어 구단에서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며 노력한 것이 인천으로 오게 된 큰 요인이 됐다”고 답했다.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현재 K리그는 월드컵으로 인해 휴식기를 갖고 있다. 안데르센 감독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팀을 추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 그는 “북한에 있을 당시 중국 위성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ACL에 나가는 팀들의 경기를 여럿 봤다”고 강조한 다음 “인천의 최근 8경기 풀 영상을 보고 왔다. 인천의 팀 스타일도 충분히 체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데르센 감독은 “시즌 중간에 들어와 어려운 상황이고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천이 목표한 잔류 그리고 그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그렇다 면 보다 장기적으로 인천을 어떤 팀으로 바꾸고 싶은 지 물었다. 그

는 “올 시즌을 토대로 다음 시즌부터 상위권에 갈 수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싶다

안데르센 감독은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지내며 속도를 중시하는 빠른 축구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격적인 축구로 상대와 대적하는 스타일이 안데르센 감독의 기본적인 축구 방향이다. 그는 “좌우로 패스하며 공격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빠르고 과감하게 나가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며 간접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밝혔다.

그는 인천에서도 이러한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안데르센 감독은 “원팀(ONE TEAM)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퀄리티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리티 있는 축구란 “우리가 공격하고 전재하는 작업에 있어 질적으로 수준 높게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ACL 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5라운드 현재 1승 6무 8패(승점 9)의 기록으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21골로 공격력은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지만, 문제는 수비진이다. 29실점으로 경기당 2실점에 육박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데르센 감독은 “실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실점율을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팀을 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데르센 감독에게 이곳 인천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었다. 그는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 팀이 올 시즌 K리그 1 잔류 이상의 목표를 이루고, 장차 다음 시즌 ACL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새 도전에 나선 동화작가 안데르센 감독의 비장한 각오가 미추홀에 가득 퍼지기 시작했다.

글 = 김명권 UTD기자 (iu_football@naver.com)



INCHEON
UNITED

온 안데르센

HEAD COACH

1963년 2월 3일
노르웨이/독일



MATCH PREVIEW

안테르센 감독의 첫 시험대가 열린다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한 약 50여 일간의 긴 휴식이 끝나고, 드디어 'KEB하나은행 K리그 1 2018'의 후반기가 시작된다. 앞선 전반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14경기 동안 1승 5무 8패(승점 8)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강등권인 리그 11위로 전반기 일정을 마쳤다.

휴식기 동안 인천은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했다. 최근 북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노르웨이 출신의 욘 안테르센 감독이 부임하여 새로이 인천의 지휘봉을 잡았다. 7월은 안테르센 감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7월에 안방에서 총 3경기(리그 2, FA컵 1)를 치른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INCHEON

16라운드 / 7월 11일(수) 19:3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NGWON



개막전의 석패, 안방에서 되갚아준다

휴식기 이후 치르는 첫 홈경기이자, 안테르센 감독의 첫 번째 홈경기다. 상대는 올 시즌 인천에게 개막전 1-2 패배를 안겨준 강원FC다. 강원은 전반기에 6승 2무 6패(승점 20)를 기록하며 리그 6위로 후반기를 시작했다. 전반기동안 강원이 보여준 장점은 역시 막강 화력이 다. 강원이 전반기에 넣은 20골은 선두 전북현대에 이어 리그 최다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강원 공격의 중심에는 제리치가 있다. 올해 강원엔 입단한 제리치는 14경기 11득점으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 있다. 뛰어난 골 결정력은 물론, 큰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과 세밀한 발 기술을 두루 갖췄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이근호가 최근 울산현대로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제리치는 이근호 없이도 임찬율, 김승용 등 다른 파트너와의 호흡이 좋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은 반대로 수비가 약점이다. 강원이 전반기에 내준 14경기 24실점은 리그 최다 실점 부문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주된 문제는 확고한 주전 수비진이 없다는 부분이다. 수비진 구성원 뿐 아니라 포백, 쓰리백 혼용 등 수비 전술 자체 그리고 골키퍼 구성의 변화도 잦다. 강원은 후반기를 대비해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INCHEON

20라운드 / 7월 22일(일) 18:0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SEOUL



안방에서 서울에 강했던 면모를 이어간다

인천은 강원과의 홈경기를 마치고 경남FC와 수원삼성과의 원정 2연전을 치른 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FC서울을 상대한다. 인천은 최근 2번의 서울전에서 송시우의 막판 극적인 득점에 힘입어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 행진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송시우가 지난 5월 28일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주상무로 떠나면서 인천은 송시우 없이 서울전을 치러야 한다.

서울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14라운드 현재 3승 6무 5패(승점 15)로 9위에 머물고 있는 서울은 황선홍 감독이 사퇴하면서 이을용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반기 막판 서울은 4-1-2-3 포메이션을

토대로 반전을 노려했다. 이을용 감독 대행은 황기욱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펼쳤다. 휴식기 동안 서울은 천안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후반기를 대비했다.

올 시즌 서울의 공격력은 약하다. 14경기에서 12골 밖에 넣지 못했는데 이는 리그 최소 득점 2위의 기록이다. 에반드로, 안텔손 등 외인들이 슈퍼매치에서 반짝 활약을 했을 뿐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박주영, 박희성, 윤승원 등 다른 자원들의 활약도 미비하다. 그나마 심상민-김원균(황현수)-곽태휘-신광훈(박동진)으로 구성된 수비진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INCHEON

FA컵 / 7월 25일(수) 19:3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POCHEON



K3 챔피언을 상대로 K리그 1의 위력을 선보인다

인천은 서울전을 마치고 사흘 뒤 바로 다시 한 번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에는 리그가 아닌 FA컵 홈경기다. 인천의 상대는 지난 시즌 K3리그 우승팀인 포천이다. 포천은 명실상부한 K3리그 최고의 팀이다. 2008년 창단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K3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총 5회의 통합 우승으로 K3리그 역사상 최다 우승팀이다.

포천은 K3리그 내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팀답게 국내 축구팬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성남FC의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박준혁이 최근까지 몸담았다. 그러나 최

근 박준혁이 K리그2 대전시티즌으로 이적하면서 당장 만날 일이 사라졌다. 인천으로서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작게나마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비진에는 2012년 인천에서 주전 풀백으로 활약했던 이규로가 있다. 그밖에도 2011년 인천에서 프로에 데뷔한 미드필더 지경득을 비롯해 성남 출신 오도현, 광주 출신 이순민 그리고 AC밀란 유소년팀 출신으로 알려진 포천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선수인 공격수 파브론도 활약하고 있다. K3리그 어드밴스 소속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선수가 수많은 포천이다.

인천유나이티드 하이트필바든존

하이트필바든존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Feel 필바든치킨에서 제공하는 닭강정을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닭강정은 맛보기용으로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됩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5테이블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10,000원	7,500원	2,500원

정상가: 테이블당(2인) 30,000원

※ 1인당 가격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이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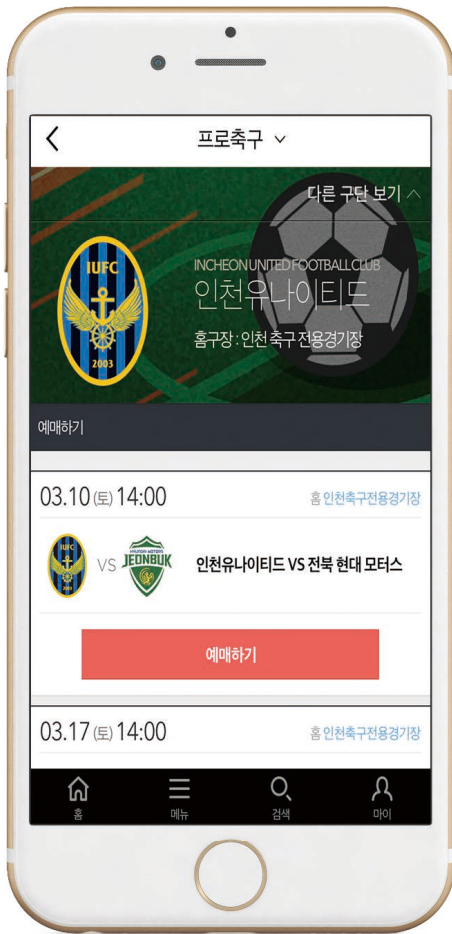
아늑한 공간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Meals on Wheel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다과를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6명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20,000원	15,000원	5,000원

정상가: 성인 및 청소년 30,000원 / 어린이 20,000원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INTERPARK MOBILE TICKET

매표소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APP을 다운받으면
입장권 발권 없이 입장 가능!



인천유나이티드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안내

인천유나이티드는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작업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를 비롯한 주주 정보 수정을 비롯하여 주주카드 재발급 등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유나이티드 경영기획팀(032-880-551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OKIE INTERVIEW

‘인천의 원모스’ 정원영,
경기장에서 독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



INCHEON
UNITED

정원영
DEFENDER

1992년 5월 26일
184cm, 78kg

중앙 수비수로서 빌드업 능력은 자신 있다.
스피드가 좋아서 상대가 빨라도 커버하는게 내 장점이다.

정원영은 독하다는 이미지로 남고 싶다.
투지 넘치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기억 되고 싶다

하루 빨리 인천 팬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가 있다. 올 시즌 중고신인으로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해 현재 R리그에서 1군 데뷔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정원영이 그 주인공이다.

만 26세의 중고 신인.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가 가진 간절함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팀 인천을 통해서 프로에 입성한 정원영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축구가 하고 싶어 홀로 서울로 간 소년

정원영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잠시 생각하더니 2002 월드컵 이야기를 꺼냈다. 2002 월드컵이 한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원영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축구를 배우기 위해 혼자 무작정 서울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어린 나이에 오로지 축구를 배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축구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주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다. 지금은 중앙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부평고 시절까지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두루두루 보기도 했다. 그는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중앙 수비수로 전향하게 되었다. 해보니까 수비수가 나에게 맞는 것 같다”며 “공격수랑 경험하는 상황에서 몸싸움이나 태클로 공을 끊어내는 순간이 다른 포지션과 다른 수비수만의 쾌감인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간절함을 안고 입단한 인천유나이티드

정원영은 지난겨울 공개테스트를 통해 어렵사리 인천에 입단했다. 6개월간 인천에서의 생활에 대해 정원영은 “공개테스트를 거쳐 힘들게 팀에 들어왔다. 입단하자마자 적응할 새 없이 전지훈련을 가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었다”며 “그래도 어렵사리 팀에 들어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체중도 감량했다”라고 올해 상반기 동안 달려온 날을 회상했다.

‘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정원영의 간절함이 이제는 ‘경기장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바뀌었다. 정원영은 “경기를 나가야하는데 전반기에 R리그만 나섰다. 프로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나름대로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기회라

는 게 쉽게 오지 않아 걱정도 있지만 오직 데뷔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테르센 감독에게 어필하는 내 장점은?

최근 인천은 제 8대 사령탑으로 안테르센 감독을 선임했다. 새로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춘다면 충분히 자신의 꿈인 프로 데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일 터. 정원영은 “중앙 수비수로서 빌드업 능력은 자신 있다. 또한 스피드가 좋아서 상대 공격수가 빨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내 장점”이라고 밝히면서 안테르센 감독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물었다. 그러자 정원영은 “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측면에 있는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볼을 잡았을 때 공을 공급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특히 R리그 경기에서는 (김)보섭이나 (김)덕중이한테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크나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팬들에게 ‘독한’ 선수로 기억되길 원한다

올 시즌 정원영은 등번호 33번을 배정받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정원영은 “포항에 하창래 선수가 작년에 인천에서 뛴 때 33번이었다. 하창래 선수가 테스트를 통해 들어와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선보였듯이, 나도 인천에서 내 능력과 절실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이유로 33번을 선택했다”며 등번호에 담긴 숨겨진 뒷 이야기를 전했다.

정원영은 인천 팬들이 자신을 ‘독한’ 선수로 기억해주길 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원영은 독하다는 이미지로 남고 싶다. 그만큼 수비수로서 투지 넘치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기억 되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 스페인의 라모스를 좋아한다. 언젠가는 ‘인천의 원모스’로 불리고 싶다. 하루 빨리 인천 팬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글 = 김형찬 UTD기자 (khc8017@naver.com)



오직 인천만을 위한 디자인

폴로 셔츠 블랙 60,000원

집업 트레이닝 화이트(하계용) 100,000원

블루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폴로 셔츠 블루 제품도 판매 예정)





K LEAGUE 1



우리는 인천



PRIDE OF INCHEON

K LEAGUE 1 16 ROUND



7/11 (수)
19:30

VS 강원FC

K LEAGUE 1 19 ROUND



7/22 (일)
18:00

VS FC서울

FA CUP 2018 32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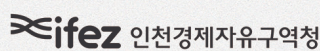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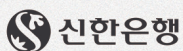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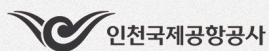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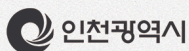


VS 포천시민축구단

7/25 (수)
19:3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승의역)

☎ (032) 880 - 5500
WWW.INCHEONUTD.COM



본 매거진 마지막장에 블루카페
500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 인천
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